

비상계엄이 '세 시간 천하'로 끝난 이유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에이, 설마... 가짜뉴스 아냐”로 시작했다가 “에휴, 나라 꼴이... 애꿎은 군인들만 불쌍하다” “나라 망신살이 뻘뻘했다”로 끝난 3일 밤의 ‘비상계엄 소동’은 사실상 세 시간만에 끝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여 만에 이를 해제했지만, 이미 그 전인 4일 자정무렵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가 넘는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긴급 소집돼 전원 찬성으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에 삼일 천하도 아니고 세 시간 천하가 돼 버렸다.

은 국민과 전 세계를 경악케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언이 사실상 ‘해프닝’으로 막을 내린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명분’이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4분께 긴급 국민담화를 통해 정부관료 탄핵,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국회의 정쟁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하

면서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렵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종북세력, 안보위협’이라는 등식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국회 예산안은 매년 여야가 갈등을 겪어왔던 문제였고,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여야의 정치 이슈다.

더군다나,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 677.4조원 규모에서 4.1조원 수준이었다. 전체 예산의 0.6%다. 이 4.1조원에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비상계엄의 사유로 든 건 너무 나간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동조세력도 없었다. 심지어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비상계엄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을 정도다. 군과 경찰은 비상계엄사태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자원이지만, 이들도 진정 국가가 비상사태이고 대통령의 명을 마음으로 따라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예전과 확 달라진 시민의식도 비상계엄을 무력화시킨 커다란 동력이다. 지금은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이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당시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을 한 세대이고, MZ세대들은 소통 없이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에 따를 세대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IT)과 미디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예전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출동해 국회와 신문·방송사를 폐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수만 군데에서 중계되는 시대다. 국내 포털을 장악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유튜브나 다른 SNS 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비상계엄 선언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후폭풍은 그냥 넘길 해프닝 수준이 아니다. 이미 국력은 땅에 떨어졌고, 그동안 힘들게 국민과 기업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이란 브랜드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상식에서 벗어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관련자들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서울시장의 자리 지키고, 대통령이 되는 길



김 현 정
(정책사회부)

가끔 사람의 운명은 한순간에 바뀐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무릎팍도사’에 나와 빵 떠서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오른 안철수의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으로 대한민국의 수장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 3일 오후 10시27분경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로부터 약 2시간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에 반대한다”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 말이 진심이었다면, SNS에 게시

물을 올리는 것에 그쳐선 안 됐다. 만약 오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면 안 의원이나 윤 대통령처럼 그의 운명이 단번에 바뀌었을 수 있다. 폐북에 몇 마디를 남기는 대신, 행동으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보여줬다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오 시장은 제 코가 석자다. 계엄령이 선포된 날도 정신없이 바빴다. 지난 3일 오전 오 시장은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돌연 취소했다. 지하철 파업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명태균 리스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했다. 결국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등을 고소하고 출장은 다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교통공사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하나 이 출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다시금 없던 일이 됐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은 지난 약 15시간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안 간다→간다→안 간다’고 계속 말을 바꾸며 시정 운영에 큰 혼란을 줬다.

3일 개최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고소 고발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송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곳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것이 시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돼 극도로 자제해왔다”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휘말린 게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 일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는 커녕 자신의 송사로 눈코 뜰 새 없는 그는 오늘도 시장의 자리를 지키고, 대통령이 되는 길과 멀어져만 가고 있다. /hjk@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1월 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고달픈 날을 위해 장미를 선물. **48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60년생** 친구와의 대화 중 해결책이 떠오른다. **72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의 날이다. **84년생** 떠나기도 머무르기도 힘들다.
- 37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거래가 순탄. **49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양보가 미덕. **6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 **73년생** 오후에 반가운 소식 이온다. **85년생** 지출도 주머니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
- 38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50년생** 먼저 용서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62년생** 이별에 대해 흐르는 것을 막아서지 마라. **74년생** 삼각관계가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86년생** 지갑이 비었으니 비상금을 활용.
- 39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자. **51년생** 가족도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 가는 것. **63년생** 몸은 피곤해도 영입이득이 늘어나간다. **75년생** 만남에서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87년생** 욕심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 40년생** 사기 운이 있으니 도장 찍는 일은 신중히. **52년생** 죽은 나무에 물 주기는 인제 그만. **64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복권이라도 한 장 구입. **76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못하니 기다려라. **88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온다.
- 41년생** 소소한 작선이 더 큰 보답으로 온다. **53년생** 눈에서 멀어진다고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65년생** 무리한 지출로 마음이 불탄. **77년생**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것은 부모님 마음. **89년생** 내 재산에 대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 42년생** 진실이 매번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54년생** 어진 친구를 만나 귀한 정보를 얻는다. **66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벌 언덕이 절실. **78년생** 나에겐 자랑이지만 남 에겐 눈엣가시이다. **90년생** 자랑만 하는 인색한 구두쇠는 3류 인생.
- 43년생** 짐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라. **55년생** 종로에서 뿔맛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길 듯. **67년생** 정치나 종교에 관여하지 마라. **79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지출도 많이지니 신중해야 차후 후회가 없다. **91년생** 사랑에 지갑이 털린다.
- 44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가 된다. **56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신을 두라. **68년생** 일시적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하지 마라. **80년생** 불평하지 마라 종이 절이 싫으면 자신이 떠나야지. **92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접는 것이.
- 45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글프다. **57년생** 제2의 인생길에 사색하는 사람이 많으니 소문나지 않게 조심. **69년생**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배려는 큰 힘이 된다. **81년생** 인생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가 힘들다. **93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는다.
- 46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한 것. **58년생**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위한 날. **70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82년생** 맹자 말대로 사람은 선하기도 순 자가 말 한대로 악하기도 하다. **94년생** 과거의 슬픈 일은 이제 잊어야 한다.
- 47년생** 주변인과 견해 차이로 손해가 발생하니 내가 양보해야. **59년생** 분홍색 손수건이 오늘 행운의 상징. **71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83년생** 길을 나서면 에너지가 따라오니 분발. **95년생** 부모님과 의논하고 결혼계획을 세워야.

김상회의四季 떠오르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해 잠시 적어본다. 다시 떠오르는 비트코인...50만 달러까지 갈까. 비트코인은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미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 비트코인의 특징은 총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코인은 발행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희소 가치가 뛰어나다. 투자하고 싶으면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 1개에 1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대단한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코인은 꼭 1개 단위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투자금만큼, 즉 조각으로 사고팔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어치만 사고 싶다면 1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의 아주 작은 조각을 사면 된다. 채굴로도 얻을 수 있지만 전문적이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채굴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비트코인은 인기만큼이나 부작용도 크다. 추적이 어렵고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죄나 탈세 또는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되기도 한다. 각국은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미의 엘살바도르와 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법정화폐로 정식 화폐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삼은 것은 빈곤 수준으로 추락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인데 경제 회복이라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다시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진짜로 준비자산으로 삼으면 50만 달러, 한화로 7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전 세계의 시선이 가상화폐로 쏠리고 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2	1	9	8	6	7
2	1	8	7	2	6	5	9
6	9	6	5	2	7	2	1
8	2	9	6	8	9	7	1
1	8	7	8	6	2	9	2
9	2	9	1	7	2	6	8
7	8	1	2	8	9	6	6
7	8	6	9	1	2	9	9
2	6	2	9	5	2	1	7
9	9	6	8	2	2	1	8
2	6	8	2	8	1	7	9
1	7	2	9	9	6	8	2
2	8	9	6	1	7	9	2
7	8	9	2	9	8	2	1
6	9	1	7	9	8	2	1
8	9	1	7	2	6	9	2
6	2	8	1	7	8	9	2
8	2	7	9	8	9	2	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2	
	2	7		6		8	
9		3			2	1	4
		9	2		1		
	5						3
			5		3	6	
	7	2	4			9	8
	3			2		8	1
4	8						3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